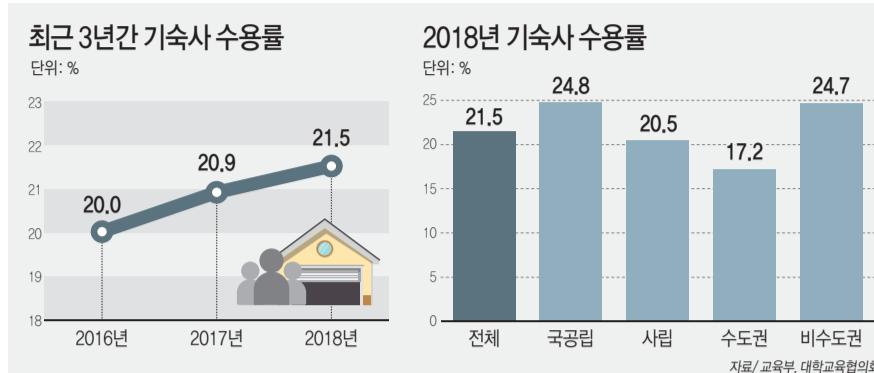


콩나물시루 강의실… 기숙사 수용 20%만… 교육 질 ↓

교육부-대교협 대학 정보공시

50명 이상 대규모 강의 늘어
국·공립보다 사립 5.2%p 높아
전임교수 강의 전년 보다 하락
수도권 기숙사 수용률 17.2% ‘열악’



‘콩나물시루’를 연상케 하는 대학의 중·대형 강의가 늘고,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이 하락하는 등 대학 교육의 질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기숙사 수용률은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낮아 대학생 주거난도 여전했다.

◆중·대형 강의 늘고, 전임교수 강의 담당 비율 하락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31일 발표한 ‘2018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보면, 올해 2학기 강좌 수는 총

28만9000여개였고 20명 이하 소규모 강좌 비율은 41.7%로 1년 전(43.7%) 대비 2.0%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50명 이상 중규모 강좌 비율(45.0%→46.9%)과 51명 이상 대규모 강좌 비율(11.3%→11.4%)은 각각 전년보다 1.9%p, 0.1% 포인트 상승했다.

대학 설립유형별로 보면 사립대학의 소규모강좌 비율(42.8%)이 국·공립대(37.6%)보다 5.2%포인트 높았고, 지역별로 비수도권대학(42.1%)이 수도권대학

(41.1%)보다 1.0% 포인트 소폭 높았다.

대규모 강좌는 소규모 강좌와 비교해 교수 1인이 가르치고 지도해야 하는 학생 수가 많아 교육 여건이 낮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전임교수의 강의 담당 비율도 1년 전보다 떨어졌다.

2018년 2학기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65.4%로, 전년(66.5%) 대비 1.1%p 하락했다.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사립대학(66.5%)이 국·공립대학(62.0%)보다

4.5%p 높았고, 비수도권대학(68.2%)이 수도권대학(61.1%)보다 7.1%p 높았다.

◆기숙사 수용률 21.5%, 수도권 17.2%

재학생 수 대비 기숙사 수용 가능 인원의 비율을 나타내는 기숙사 수용률은 올해 21.5%로 전년(20.9%) 대비 0.6%p 상승했으나, 여전히 10명 중 약 8명은 교내 기숙사를 이용할 수 없다.

특히 수도권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17.2%로 비수도권대학(24.7%)보다 7.5%

포인트 낮아 수도권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들의 주거난이 더 열악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공립대학의 수용률은 24.8%로 사립대학(20.5%)보다 4.3%p 높았다.

229개 기숙사 중 기숙사비를 카드로 납부하는 대학은 전체의 17.5%(40곳)로 전년 대비 12곳 늘었고, 현금분할납부 기숙사는 29.3%(67개)였다. 현금으로만 일시 납부하는 기숙사가 전체의 61.6%(141개)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사립대 수익용 기본재산·법인 법정부담금 증가

사립대학 법인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 재산과 법인이 납부해야 하는 법정부담금 부담액은 늘었다.

2018년 사립대 법인 보유 수익용 기본 재산은 8.3조원으로 전년(7.8조원) 대비 약 5000억원 증가했고, 확보율도 65.4%로 전년보다 4.3% 포인트 상승했다. 수도권대학은 74.1%, 비수도권대학은 53.3%로 각각 비슷한 비율로 상승했다.

2017년 사립대학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액은 2951억4000만원으로 전년(2555억3000만원) 대비 396억1000만원 증가했고, 법정 부담률도 53.3%로 전년보다 4.6% 포인트 상승했다. 수도권대학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56.6%로 전년(54.1%) 대비 2.5%p 상승했으며, 비수도권대학은 48.8%로 전년(41.4%) 대비 7.4% 포인트 올랐다.

한편 이번에 공시된 대학별 세부 자료는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대학가 소식

서울여대 ‘제3회 융합기술 기업보안 심포지움’ 개최

서울여자대학교는 정보보호특성화사업단(단장 임효창 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이 11월 2일 오후 2시~5시까지 서울시 노원구에 위치한 서울여대 50주년기념관에서 ‘제3회 융합기술 기업보안 심포지움’을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심포지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후원한다. 이번 심포지움은 사물인터넷(IoT), 핀테크(FinTech), 빅데이터(BigData) 등 3개 기술의 기업보안 사례를 관련 전문가가

세션별로 발표한 후 토론으로 진행된다. ‘IoT와 기업보안 사례’에서는 삼정KPMG 김민수 상무가 발표하고, 국민대학교 정보보안암호수학과 김동찬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핀테크와 기업보안 사례’에서는 링카코리아의 김정혁 대표가 발표자로, 백석대학교 정보통신학부 이근호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빅데이터와 기업보안 사례’에서는 SAS코리아 강철 전문위원이 발표자로,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손종모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숙명여대 ‘숙명 우먼 인 테크 데이’ 진행

숙명여자대학교(총장 강정애)와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 아마존웹서비스가 창의적 여성 IT 전문가 육성을 위한 ‘우먼 인 테크(Women in Tech) 데이’ 행사를 11월 1~3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숙명 우먼 인 테크’는 사회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IT분야의 학생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관련 여성 전문가를 확충하기 위해 시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여성 인력의 비중이 3분1정도에 머무르는 가운데, 본 프로그램은 인력구조의 성비 불균형을 해

소하고,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전문지식과 역량을 교육해 해당 분야로의 진출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정애 총장은 “미국에서는 고학력 IT 인재가 의사나 변호사 등 전통적인 전문직을 제치고 연봉 1위 직군으로 부상했는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IT업계에 대한 인식이 낮은 편”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IT 교육과 소프트웨어 인력 육성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관련 분야에 진출하는 학생 저변도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경대 ‘서울시 캠퍼스타운 시범사업’ 선정

서경대학교는 예술교육센터(센터장 김범준)가 서울시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프로그램 2단계 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지역의 문화예술 경제생태계 조성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은 대학, 청년, 지역사회와의 상생 발전을 유도해 일자리, 주거 같은 청년 문제와 지역 활력 침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 사업 선정에 따라 서경대는 대학의 인적·물적·지적 자원과 서울시 행정적 제도개선을 바탕으로 일자리와 창업 지원, 주거부담 해소, 문화 사각지대 해소, 지역

상권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서경대는 2019년부터 3년 동안 서울시 보조금과 대응투자로 약 18억 원을 투입해 ‘성북 지역주민 예술공동체 예술나루 조성 프로젝트’를 운영할 예정이다.

프로젝트를 통해 예술교육, 문화예술 분야 창업 지원, 지역커뮤니티 활성화 등 다양한 관련사업이 운영된다.

서경대 예술교육센터와 성북문화재단은 11월부터 시범사업의 ‘문화예술분야 창업 잡(JOB)’을 실시하고 지역 청년예술가와 문화예술분야 창업 회망자를 모집한다.

/한용수 기자

일자리도 ‘역세권 선호’… 강남구 1위

잡코리아-알바몬 근로자 719명 설문 51% 근무지 명당 ‘지하철역 인근’

서울지역 20~30대 근로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근무지역은 강남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지 선호도는 교통여건이 좋은 지하철역 인근일수록 높았다.

31일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서울 거주 20~30대 근로자 719명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명당자리 일터’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51.0%가 근무지 명당으로 ‘교통이 편리한 지하철역 인근’을 꼽았다.

이어 △주변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도심지(21.1%) △문화공간이 많이 밀집한 지역(10.8%)을 선택했다. 이 외에 △녹지 공간이 잘 구성된 공원 인근(8.1%)과 △공기 좋고 전망이 탁 트인 서울외곽(6.1%) 등의 의견도 있었다.

명당자리 일터 1위는?

*서울 거주 20~30 근로자 719명 대상 조사. 자료: 잡코리아X알바몬



선호하는 근무지 지역으로는 △강남구가 24.9%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1위에 올랐으며, 다음으로 △종로구(8.5%) △영등포구(6.8%) △마포구(5.0%) △서초구(4.9%)가 TOP5 안에 들었다. 세부 근무지를 보면 △강남이 20.3%로 1위를 차했으며, △여의도(17.8%) △종로/시청

(15.9%) △광화문(12.7%) △테헤란로(9.0%)가 5위 안에 올랐다.

한편 ‘근무지 내 자신의 자리 위치가 업무를 하는데 있어 영향을 주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60.4%가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응답했으며, 30.9%는 △매우 영향을 준다고 답해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근무지 내 자신의 자리 위치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이 꼽은 근무지 내 명당자리(복수응답)로는 △상사(관리자)와 거리가 가장 먼 자리가 응답률 46.2%로 1위에 꼽혔으며, 근소한 차이로 △가장 안쪽 구석진 자리도 45.6%로 2위에 올랐다. 3위는 △창가 자리(38.1%)가 차지했으며, 이외에 △냉난방 기구와 가까운 자리(10.8%) △탕비실 및 휴게공간 옆자리(8.3%) 등을 선호한다는 응답도 있었다.

/한용수 기자

숙명여고 교무부장, 딸 미술대회도 심사

김해영 의원, 국감 자료

‘비교과 영역 개선방안 시급’

시험문제를 쌍둥이 딸에게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딸이 수상한 교내 미술대회 심사위원을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해영 의원(더불어 민주당)은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숙명여고 미술창작작품 공모전(2017.10.)’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쌍둥이 딸이 참가한 교내 미술대회의 심사를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31일 밝혔다.

문제가 되는 미술대회는 작년 10월 13일 숙명여고 재학생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미술창작작품 공모전’으로 쌍둥이 언니가 특선(4등)을 받았고, 해당 내용으로 학교생활기록부의 비교과 교내대회 수상 실적으로 기록됐다.

당시 총 2명의 심사위원 명단에는 쌍둥



서울 숙명여고 정문

/연합뉴스

이 자매의 아버지이자 미술교사인 교무부장과 또 다른 미술교사가 이름을 올렸다. 당시 미술대회 평가와 관련해 별도 배점표나 어떤 기준에 따라 심사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만한 기록은 아예 남아 있지 않았다.

김해영 의원은 “학종에서도 비교과 교내수상에 대한 지적이 많다”면서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교과 영역에 대한 교육당국의 철저한 개선방안 마련으로 공정성과 신뢰도 제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국제경영학회 이달 3일 경희대서 추계학술대회 진행

한국국제경영학회(회장 신건철 경희대 교수)는 이번 달 3일 경희대 서울캠퍼스 경영대학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 글로벌 경영의 과제’를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연다.

글로벌경영대상 시상식도 열릴 예정이며, SK하이닉스가 경영대상,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이 CEO 대상, 디미트리스 실리카스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회장이 다국적기업 대상, 김태순 모파스(MoFAS) 대표가 본 글로벌 CEO 대상을 받는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자매학회인 일본국제경영학회를 비롯해 11개 국에서 250여 명이 참석한다.

/한용수 기자